

따뜻한 배려



장광근 테오필로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테오필로)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한 2008년이 어느덧 반을 훌쩍 넘어 갑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에 한국가톨릭의료협회 가족들과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하느님께서 주관하신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14대, 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환경노동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
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현재는 한나라당 서울시 당 위원장으로서 3선 중진의원으로 서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른 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시
작했습니다. 언제 바꾼 지도 모르는 낡은 구두를 신고 이른 시간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우리
주민들을 뵈고자 경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재래시장을 다녔습니다. 그때 연세가 지긋하며 거
동이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보자기로 묶은 짐 속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셨습
니다.

“날씨도 찬 새벽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민들의 소리를 듣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나오시
는 분께 가난해서 좋은 선물은 할 수 없고 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왔노라” 며 불쭙 내미
신 손엔 금새 끓여 담은 따뜻한 물 한 잔이 있었습니다.

언 입술로 천천히 마신 그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
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무릎이 아파 잘 걷지를 못하셔서 제가 시장을 다니며 인사
를 할 때 조금 멀리 있으면 차마 걸어오실 엄두가 나질 않으셔서 그동안 담아온 보리차를 주지

“날씨도 찬 새벽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민들의 소리를 듣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나오시는 분께

가난해서 좋은 선물은 할 수 없고 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왔노라”

못했지만 드디어 오늘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하시며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실 때 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주민들을 위해 우리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흔들릴 때마다 그 겨울의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큰 사랑과 성원 속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었고 힘들어진 국가 경제를 다시 세우고 지역 민심에 귀 기울이는,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느님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뽑아서 만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불안 및 경기 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 FTA

체결,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영킨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풀며 돌아선 민심을 달래고 처음 하느님께 약속드렸던 일들을 되새기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정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원님들의 뜻을 높이 받들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들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국가가 품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바꾸겠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쌀쌀한 어느 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시던 할머니의 소중한 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며 제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자신이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 격려하고 일으켜 주시는 하느님,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언제나 기쁨과 희망을 만끽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